

단편소설

아버지의 등

이름 불 낚시 치곤 나른하리만 치 따뜻한 오후였다. 내가 신책이라도 하면 좋겠지만 명희는 그냥 머그잔 가득 커피를 타서 아파트 베란다 의자에 앉아 조용히만 빠르게 움직이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강에 새로 생긴 넓은 다리 위로 쓴살 같이 달리는 자동차가 바람을 가르듯 갈아서 시아르 멀러오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넘길 때면 밀물 같은 파도가 덮치는 것 같은 환상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화단 옆에 오년 전 갈나무인줄 알고 심은 고엽나무가 이젠 3층까지 키가 자라서 가을이면 새들의 천국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높은 가지의 곶감을 누구 하나 건드리려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새들은 마음 놓고 가을의 만찬을 즐겼는데 이런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길목이라 그런지 전에 심심치 않게 들던 새 소리가 이젠 들리지 않았다.

풍경만큼 화려하지 않은 정적을 깨는 벨소리가 들릴 때까지 명희는 이 계절의 피크시를 노란 개나리에 기대서 느끼고 있었다.

"어머세요?"

"명희나 엄마야?"

"왜일까요? 이 시간에 전화 다 주시고?"

"아버지가 아이랍니다."

순간 할말을 잃은 명희는 봄날의 풍경을 깨뜨리는 전화기를 들지

말걸 하고 후회 했었다.

원래대로 전화를 내려놓으면 다시 칠 때면 버스 안의 소음이 그 빠져 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몇 번이고 그냥 수화기를 내려놓고 싶었다.

병원에 가기로 하고 재비를 한다. 걸음 단추를 껴면서도 제자리를 찾아가는지도 모르게 허겁지겁 택시에 올랐다.

조금 전 명희가 본 풍경 속으로 택시는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고 주변은 시끄러운 클락슨 소리와 검은 매연에 쌓이는 듯했다.

민원으로 채워진 버스가 옆을 지나 칠 때면 버스 안의 소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빠르게 토해지듯 내린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 각각이다.

집에선 구경도 못 할 만큼 커다란 TV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픈 환자를, 그들을 간호하는 보호자들, 그리고 문병 온 방문객들, 모든 이들이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바라보는 바보상자가 사람들에게 많은 위안을 주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손에 들려진 리모콘에 의해 돌리던 채널, 뉴스에 나오는 내용은 한·미 FTA에 반대 시위하던 농민이 분신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빠르게 움직이는 발걸음 따라가다가 물어본 아버지 병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문을 열었다. 침상에 누워있던 아버



김은희 주부/행안부

자는 명희가 들어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

갈갈하게 울러오는 목안의 가래를 뱉어내느라 힘을 쓰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는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잡은 휴지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명희는 다가와 안타까운 마음에 아버지의 등을 쓸어 내린다. 고비사막처럼 말라서 먼지가 들쭉이는 것처럼 아버지의 등을 쓸어 내릴 때마다 환사가 눈앞의 공기 속에 가득 찬 것 같아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예전에 아버지의 등은 이렇게였다. 명희는 문득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업힌 기억을 끄집어냈다.

명희가 시골을 벗어나 생활했던 것은 어렸을 때 삼년 정도 인 것 같다. 농사 아니면 할 일이 없었던 부모님은 서울 영등포 시장에서 노점 과일 장사를 하셨는데 명희가 일곱 살 되던 해 겨울, 주변 학교로 언니를 따라 놀러 가는 것도 지겨웠는지 부모님 노점 판매에 같이 분신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빠르게 움직이는 발걸음 따라가다가 물어본 아버지 병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문을 열었다. 침상에 누워있던 아버

과가 그렇게 많다는 것에 신이 났었다.

잠정봉다리 가득 담아 가는 굴이 종이폰으로 바뀌어서 아버지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게 명희가 갖고 싶은 빨간 구두로 바뀔 것 같은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커다란 빨간 고무 다리가 바다를 보일 때 짙은 눈꺼풀 위에 사파이어색 닳아 놓은 것 같았는데 어머니가 뒷정리를 할 테니 아버지 함께 먼저 들어 가라하신다.

과일이 조금 남은 다라 하나를 남겨 놓고 아버지 빈 고무 다리를 한 손에 또 한 손엔 내손을 잡으라고 버스를 타셨다.

버스는 아궁이 불 지핀 집보다 더 따뜻했다. 난 바로 잠에 빠져들었고 버스가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잠든 명희를 어쩔지 깨우지 않고 남겨두셨다.

버스 밖 한 바퀴는 얼얼 스릴 때 명희는 다시 눈이 띄었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 따스함의 감각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잠들어 있는 척했고 그렇게 집에 다다를 때까지 아버지 한 손에 빨간 고무다리가 들려있었다.

그 해가 명희네 가족이 서울에서 마지막 겨울을 보낸 해였다.

기침소리에 정신이 번 명희는 아버지의 등을 한번 더 힘주어 쓸어 내린다. 툭툭 하는 깊은 기침과 함께 아버지를 괴롭히던 누런 가래가 빠져나왔고 아버지 등에서 쏘아진 70령생 먼지 같은 환사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딸은 그제서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었다.

에세이

지친 삶을 덮친病魔



윤순옥 포천의약원의외과

초복이 내일모레인데 오늘아침 서늘한 바람은 수줍게 귀뚜라미 노래소리가 들릴 듯이 서늘한 바람이 맞는다.

태풍의 전조인 듯한 바람이지만 연녹색 일새들이 부딪치며 푸퐁한 향기로운까지 보내주는 신선한 바람의 맛이 좋다.

숲이 조건없이 베풀어주는 은총 같은 사랑을 우리는 받고만 살아간다. 그래서 부르는 자식에게 한 없는 자양분을 주기만하는 숲과 바람같은 존재인가.....

연세선 한국학 어머니들이 소설같은 삶을 살아보지 않은 분은 거의 없겠지만.....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칠순의 연세에 중풍으로 쓰러지셨다. 그야말로 한 가정을 거목처럼 버티던 그 위상이 덮치는 병마엔 맥없이 무너진다. 오남매의 자식들을

내품에서 보내기까지 태산같은 일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보내시던 그 역적같은 힘!

새벽별을 보고 들에 나가 어둠이 깔려야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과였던 아주머니. 1천여명 발을 남의 손 빌리지 않고 두 내외분이 일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래서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쓰러지신 후의 고통은 오로이 당시만의 뒤편으로 남았으니 처절한 회한의 아픔은 눈물밖에 표현할 길이 없으신지 비라 갈 때마 다 울고 또 우신다.

열을 지키시는 아버지도 이제 팔순의 할아버지다. "어린 나이에 시집과 고생고생하다 저러 되었으니 불쌍하고 또 불쌍해 그나마 저렇게라도 살아있어 주니 고마워."

스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는 모습에 파동으로 전해지는 아픔 때문에 갈 이 울 수 밖에 없었다.

일에만 집착하지 말고 더러는 자신을 관리하는 여유도 챙겼으면 오늘의 고통은 없지 않았던가? 황소같이 우직했던 모습은 간데 없고 맥없이 주저했던 모습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은 가여운 아주머니의 병상!

하루라도 빨리 호전이 되어 두 발로 걸으실 수 있도록 모든 가족이 그동안 받아온 어머니의 은혜를 이제 다같이 한마음으로 사랑으로 감싸고 일으켜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기를 부탁하며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여행기

유센코 대통령 초청 우크라이나 방문기



이상갑 (주)롯데종합식품 대표이사

2006년 12월19일 빅토르 안드리 오비치 유센코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한국 양봉산업에 대한 견학을 하시기 위하여 (주)롯데종합식품을 전격 방문하시었다.

이날 (주)롯데종합식품에서는 사단법인 한국 양봉협회 전경현 회장,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하여 이경림 포천시의회 회장, 김인만 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양봉능력조성금 조합장 등 1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유센코 대통령께 소개하고, (주)롯데종합식품에 현대화된 위생시설과 초현대식 생산시설 각종제품 등을 유센코 대통령께서 관찰 하시고 한국 양봉산업에 대한 원대정책을 의지하며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봉관계에 상호 교류 및 우호협력에 도모되도록 하는 한편 포천시와 우크라이나 도시간에 자매결연 말씀도 나누시고 본국으로 돌아가셨다.

우크라이나 본국으로 돌아가시어 (사)한국양봉협회 초청 (주)롯데종합식품 모두를 포천 양봉업계에서는 2007년 6월 14일 18명으로 구성되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게 되었다.

다음날 수도인 키예프시에 도착하여 무역센터에서 거행된 행사장에는 양봉관련 단체장 교수 등 250여명이 참석하고 유센코 대통령, 허승철 (주)우크라이나 대사님, 농림부 차관 등 관련 기관장님을 모시고 세미나 행사를 거행하였다.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후 세미나를 성대하게 마치고 저녁에 만찬장으로 이동한곳은 대통령 사저였다.

우리일행이 사저에 도착하였을 즈음 대통령께서는 농부의 복장처럼 청바지에 난방셔츠를 입고 정

원내 물을 뿌리며 오랜만에 찾아간 고향 친구를 만난 것처럼 포옹하며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다.

화려하지 않은 사저에 정원은 자연 그대로를 살리고 2~3백년 된 나무가 울창한 숲으로 수수 수목이 울창한 기리고 계셨으며 딸들로 맥주를 만드는 곳을 보여주셨는데 아주 옛날 우리농촌에서 막걸리를 빚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사저와 정원을 손수 안내하시고 만찬장으로 이동 다양한 우크라이나 전통 음식과 민속쇼를 준비하여 영부인과 함께 술을 손수 따라주시며 아주 절친한 친구처럼 대통령이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격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 일행을 대해주시는 모습에 대하여 감동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대통령께서 일정관계로 자리를 떠나시고 영부님께서 사저 곳곳을 손수 안내하신 후 선물까지 챙겨 주신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으며 아쉬운 작별을 하고 떠나 올 때에는 고향에 절친한 친구집에 다녀온 기분으로 사저를 나와 다음 일정에 따라 이동 하였다.

키예프는 조용하고 아늑한 역사적인 도시로서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세계 유산으로 등록 되었다 하여 기대이상으로 평온하고 매우 아름다운 고도에 도시였다.

다음날 현지 양봉관계자들과 함께 전국에 산재해있는 대학교 및 구소 양봉장, 박물관, 유망 관광지등을 최고급 리무진 버스로 경철에 경호를 받으며 8명의 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종합 결산 토론을 하고, 한·우 양봉관련 우호협력 체결 조인식과 송별회를 마치고 돌아 올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 같이 눈시울을 적시며 석별에 아쉬움을 나누면서 다음 일정에 들어갔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양봉관련 단

체 학계 한국양봉업계 간에 상호 방문을 통하여 기술 정보 교류 등을 나누는데 협약을 체결하고 (주)롯데종합식품은 현지 공장 설립과 기술재휴에 참여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양봉업계와 (주)롯데종합식품에서 10월 하순경 우크라이나 양봉관련자들을 초청 성대한 세미나와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본인은 해외 행사 및 전시 여행을 두루 많이 다녀오다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회가 다르고 한국양봉업계와 (주)롯데종합식품이 순수 민간외교를 아주 성대하게 마쳤다는 흐뭇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다음일정으로 아쉬움을 뒤로 한채 떠나야 했다.

한편 박윤국 포천시장을께서는 이종호 포천시 의원 정재운 OKTA 한인건설협회장, 김종재 컨설턴트 대표 항공전문가등 13명의 일행과 함께 우리일행보다 하루전 우크라이나 키예프시에 도착, 대통령을 면담하고 포천시에 추천하고 있는 항공산업 지원을 약속받고 오보이프시를 방문 자매결연 우호협력 체결하고 산업체와 유망인들을 방문. 포천시외의 우호협력 발전 성과를 거두시고 다음 일정인 몰도바로 떠났다.

빅토르 안드리오비치 유센코 대통령 내외부와 행사에 참여한 우크라이나 양봉관련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크라이나 양봉산업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우크라이나 허승철 대사님 내외부께도 감사의 드립니다.

자유기고

일동 오투기 한마음 축제를 마치고



구광식 본지 초사무원

제1회 일동 오투기 한마음 축제가 지난 6월18일 일동 공영주차장인 기산리(일명 정타)에서 개최됐다. 민·군 협력사업으로 개최된 제1회 일동 오투기 한마음축제는 일동면 이윤기 면장의 기획과 환경규 부면장의 기안으로 일동면 직원들과 일동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양운삼)의 주관으로 일동면 공경기관과 8사단 10연대와 16연대 등 군부대의 불심양면 지원과 리조협회의(회장 김인철), 새마을지도자회(회장 구인서), 새마을부녀회(회장 강한일), 의용소방대(대장

유태봉), 자율방범대(대장 나진수, 여성에비군 소대(소대장 이숙화), 일동청년회(회장 박상현) 등의 관계단체의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적극적인 협조로 화합의 한마당을 펼쳐 일동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였으며 군장병들에게는 제대후 잊혀져 가는 일동이라는 브랜드를 인식시키고 다시 한번 일동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반행사를 주최하였고 본다.

이번 축제를 주관한 일동면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4월7일 일동면

사무소 2층에 있는 민속자료실에서 1일차집을 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준비를 하였으며 행사내용으로는 추어의 병영체험 행사와 유망가수의 공연과 노인들에게는 초상화 그려주기와 청소년에게는 페이스페인팅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지만 처음으로 민·군 합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미숙한 점, 개선할 점 등 문제점이 포출되었다 보니. 그래도 성공적인 축제였다 본다.

내년 제2회 축제때는 좀더 체계적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개최하고

자 한다고 하니 포천시민의 대변자인 포천신문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일동면 각 기관 단체와 군장병과 지역 주민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사준비에 협조와 봉사 해주신 모든 분들께 주민자치위원회 한 사람으로 감사드리며 일동면민 여러분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화이팅!

장승호의 야구 이야기 15

야구장 뒷정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장승호 포천야구협회 회장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입맛을 잃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건강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건강과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알맞게 먹어야 합니다.

또한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변이나 계곡 등 여러 피서지를 가보면 가족들과 즐겁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질서를 잘 지키며 보람된 시간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하한 몇몇 사람들의 무질서와 환경의 오염은 보는 이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얼마 전 롯데지아인츠의 연구자인 부산의 사직야구장과 시민

들 그리고 야구선수들을 다크멘터리로 제작하여 방송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구에 죽고 야구에 산다는 열성팬이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산은 야구장의 꽃인 치어 리더들의 화려한 응원 그리고 관중들의 열광적인 함성이 상대팀에게 위협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직구장에서는 8회가 되면 주황색 봉지를 서로서로 나누어주며 바람을 불어 넣어 응원의 도구로 사용하다가 경기가 종료되면 휴지를 담아 한곳에 모아주는 무언의 질서가 생겼다고 합니다.

방승으로 보기에 너무나 드문 모습이었고 이러한 부산 시민들의 모습은 너무 보기 좋은 광경이었습니다. 특히 야구장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더욱 열심히 뒷정리를 하는 모습이 아름다움 그 자체였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의 어린이들이들 화랑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시간은 평창이 짧지만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는 노력의 시간과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포천에도 많은 시민의 세상이 엉뚱하게 훼손된 곳에 쏟아 부어지는 모습은 주위에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철저하게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창피한 어른들의 모습으로는 남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보람차게 보낼 2007년의 여름은 마음이 시원하고 따스한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웰빙 부사의(不思議) 삼재(三才)**

24

자신을 아는 방법은 심명공식과 사상체질이다



이규임 민족명사학회학무회장

없다.

나는 학생들에게 '자신을 아는 사람이 가장 현명(賢明)한 사람' 이고 '불수것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幸福)한 사람' 이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자신을 어떻게 아는가? 내가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팔자(四柱八字)라고 부르는 심명공식(心命公式)이고 다른 하나는 사상체질(四象體質)이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뿐이기 때문이다.

심명공식은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로 판정한다. 그리고 생년월일시는 탄생(誕生)한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심명공식은 이처럼 시간(時間)과 공간(空間)과 질량(質量) 삼재(三才)로 이루어진다. 심명공식은 이처럼 과학적(科學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시간과 공간과 질량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과학적이라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는 같은 길을 가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은가? 이것만 봐도 영터리가 아닌가? 그

렇게 말할 수도 없다. 그런데 이것은 학문(學問)이 짧은 사람의 이야기다. 쌍둥이라도 만나는 사람은 다르다. 만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교관작용(交關作用)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해석(解釋)이 달라지는 것이다. 통번(通辨)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통번이 여신(如神)'이라 말하는 것이다.

다음은 사상체질이다. 사상체질의 기본은 소음(少陰)과 소양(少陽)이다. 소음(少陰)은 일기온도를 많이 찬 사람이다. 반대로 소양(少陽)은 몸이 뜨거운 사람이다. 소음인은 몸이 찬 관계로 인삼 벌꿀 같은 열성 음식(熱性食品)이 제격이고 소양인은 몸이 뜨거운 관계로 보리 인이 같은 냉성식품(冷性食品)이 제격이다.

체질이 어떻다는 말인가? 일반적으로 소음인은 인내심(忍耐力)이 강하다. 참고 견디는 힘이 강하다. 무언가 하나를 시작하면 꾸준히 밀고 나간다. 석박사(碩博士)의 80~90%가 소음인(少陰人)이다. 이같은 공식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알고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학자가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가? 역학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대석학(大碩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상(現象)을 가지고 원칙(原則)을 가지고 말한다. 역(易)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다른 것이다. 새겨들기 바쁘다.

80~90%가 소음인이다. 사람이 잘 사귀고 임기응변에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명공식에서 인신사해(寅申巳亥)는 입법과 예상을 자오묘유(子午卯酉)는 행정과 집행을 진술축미(辰戌丑未)는 결산과 사명을 담당한다. 이처럼 체질을 알면 그 사람의 태생을 알 수 있다.

심명공식은 역(易)이 기본이다. 이 같은 공식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알고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학자가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가? 역학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대석학(大碩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상(現象)을 가지고 원칙(原則)을 가지고 말한다. 역(易)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다른 것이다. 새겨들기 바쁘다.

탐방 7 서흥목장

송아지 가격 6만원일 때 목장경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어려운 이웃 위해 봉사활동 앞장

벌써부터 한 낮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마는 예년과 비슷하게 시작되었다.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은 날이 계속되므로 우사와 운동장은 통풍을 좋게 하여 건조를 유지하고 젖소는 충분한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겠다.

포천의 북쪽 끝자락 관인면 사정리에 위치한 목장은 풍수 지리적으로 삼태기 모형에 자리 잡고 있어 '돈 많이 버는 목장 터'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복된 조子在 뜻의 '서흥'이라 이름지었다. 서흥목장 박경수 대표는 서울에서 생활하다 1996년도에 고향으로 내려와 본인이 직접 목장과 살림집을 건축하고 착유소 20마리로 목장을 시작했다.

1997년 IMF로 소값 하락과 송아지 가격이 6만원일 때 막차를 탔다고 생각하며 많이 힘들었으나 어려운 낙농현실 극복 방안을 생산비를 절감하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했다.

부부는 방천에 있는 풀과 논밭에 있는 풀을 베어 엮어 조사료를 조달하고 기계가 고장이 나면 직접 수리해서 목장에 맞

추어 기계시설을 설치하며 남들이 잡지는 시간에 열심히 일하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현재 서흥목장은 1일 서울우유 쿠퍼타랑 700리터이며 착유소 32두, 육성우 30두 등 총 62두로 하루 평균 유량은 900리터로 체세포 1등급을 받고 있다.

착유소는 구입하고 있어 목장으로 삼태기 모형에 자리 잡고 있어 '돈 많이 버는 목장 터'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복된 조子在 뜻의 '서흥'이라 이름지었다. 서흥목장 박경수 대표는 서울에서 생활하다 1996년도에 고향으로 내려와 본인이 직접 목장과 살림집을 건축하고 착유소 20마리로 목장을 시작했다.

1997년 IMF로 소값 하락과 송아지 가격이 6만원일 때 막차를 탔다고 생각하며 많이 힘들었으나 어려운 낙농현실 극복 방안을 생산비를 절감하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했다.

부부는 방천에 있는 풀과 논밭에 있는 풀을 베어 엮어 조사료를 조달하고 기계가 고장이 나면 직접 수리해서 목장에 맞

한번 산악회대장으로 산행을 하며 관인축협 부녀회 감사로 활동 중이다.

관인농협에서 실시하는 요리도 배우며 품물은 시작전 3년 선 해원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큰 보람을 느끼며 항상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은 1000리터를 목표로 쿠퍼타랑을 구입하고 부부가 서로 도우며 열심히 일하고 돌봐주는 의논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주길 바라며 충고과학너 동이아를 동업이가 공부 잘하고 가족모두 건강하길 바란다고 하며 해맑게 웃었다.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dclms623@hanmail.net

